수도권매립지관리公, 몽골에 매립가스 포집·처리 기술 전파

튀르키예 'COP31' 부대행사 참석
몽골 온실감스 감축 사업 현황 공유
자원순환 전문기관 역할 강화 의지
인천매립지서 주한 가나 대사 면담도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제감축 부대행사.


11일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개도국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원순환 전문기관의 기능을 국제사회에서도 발휘하는 중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탄소 감축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 참석해, '몽골 NEDS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 및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발표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통해 축적한 매립가스 포집·처리 기술을 몽골 현지에 적용하는 사업 소개에 중점을 뒀다. 또 현지 인허가와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매립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가스포집정 76개와 소각설비 3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약 50만 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악취와 화재 위험을 줄이고 매립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공사는 몽골 정부 및 울란바토르시와 협력해 지난해 부지사용 승인을 받고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6월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해 현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몽골 사업은 공사가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이처럼 공사의 전문성을 살려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23년 폐기물 분야 국제감축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10개국 17곳의 해외 매립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가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조강희 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가나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매립가스 활용사업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사는 현재 가나 아디파매립장의 매립가스(LFG) 소각발전사업 본타당성조사와 오티매립장의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사업 여건과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방문단은 면담에 이어 제3 매립장과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을 둘러봤다, 공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과 매립가스 포집·활용 기술을 살펴보고, 매립이 종료된 부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드림파크CC도 방문했다. 매립지의 사후관리와 친환경적 공간 활용 사례에 대한 견학이다.

공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가나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강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통해 축적한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은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공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식진흥원, 유럽서 릴레이 '한식 외교'

오는 20일 '특별한식콘서트' 열어
이탈리아 수도원 초청, 식문화 교류
앞서 포르투갈 농업·해양부 장관 방문


이달 하순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 성 안나 수도원의 미리암 다고스티노 수녀와 데보라 키날리아 수녀. /한식진흥원

한식진흥원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식문화 전파에 나섰다. 이달 하순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한식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주에는 포르투갈의 농업해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음식문화교류 및 한식의 국제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식진흥원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11월 특별한식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이탈리아 봉쇄수도원인 성 안나 수도원의 미리암 다고스티노 수녀와 데보라 키날리아 수녀를 초청한다. '풍성할 때 담아두는 지혜-이탈리아 수도원의 저장 음식'을 주제로,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식재료의 생산과 보관 및 저장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탈리아 수도원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저장 방식을 통해 자연의 풍요로움을 오래 간직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 수녀가 경험한 일상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비롯해 계절의 재료를 저장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재료가 풍성한 시기, 이를 갈무리해 다음 계절까지 활용하는 수도원의 지혜를 엿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순한 음식 보존을 넘어 자연의 순환과 절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식진흥원의 안일국 팀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탈리아 수도원의 고유한 식문화와 음식 저장의 전통을 직접 들으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이어져 온 음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식콘서트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한식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에는 포르투갈의 조세 마뉴엘 페르난데스 농업·해양부 장관이 한식진흥원을 찾았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페르난데스 장관과 면담하고 '한식의 글로벌 확산 및 양국 음식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전 세계적 K-푸드 인기와 한식진흥원의 주요 글로벌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 상대국에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양측은 한·포르투갈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IOTEC, 유네스코 교육시설 인가 취득

〈韓·인니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

자카르타서 현판식 열어
유네스코 IOC가 참가자 경비를 지원하

해양수산부가 자체 지원으로 구축한 '한국·인니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KIOTEC)가 출범한다. 이 센터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지역훈련센터(RTC)로 최종 승인을 받아 냈다.

해수부는 이 센터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판식을 열고 교육 실시 등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KIOTEC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인력개발청 내에 설립된 거점 교육시설이다. 지난 8월 유네스코 IOC로부터 5년간 운영되는 공식 RTC로 최종 승인받았다.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 아태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 해수부가 구축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간 양자 협력이 국제기구 협력으로 확장된 모범 사례로 평가 받는다.

첫 교육은 16~20일 기간 '소도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안 수질 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열린다. 국제 공모로 선발된 청년 해양 인력 20명이 전용 훈련선을 활용해 해상 관측과 데이터 분석 실습에 참여하는 일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함께 세운 교육센터가 유네스코 공식 훈련센터로 승인받아 아태 지역 해양 역량 강화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제품, 中 수입시장서 6개월 연속 선두

中, 韓 제품 2362억弗 수입… 75%↑
반도체 수출이 '견인'… 220% 급증

한국산 제품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6개월 연속으로 선두에 자리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앞서 1~3월 기간에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1~9월 한국으로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1% 늘어난 2362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현지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8%로 가장 높았다.

1~9월 누적 기준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되찾은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의 올해 1~9월 반도체 수출액은 3403억 달러 가운데 중국으로 향한 물량은 1054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가량 급증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대중 반도체 수출액도 148억 달러로 331.0% 늘었다. 9개월째 세 자릿수 증가율이다.

아울러 컴퓨터(264%)와 일반기계(26%), 농수산식품(21%), 화장품(23%)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대중 전체 수출액은 269억8000만 달러로 133.6% 늘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산 점유율이 올랐다. 미국의 올해 1~9월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129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주막'으로 日 현지 입맛 사로잡다

aT, 시부야서 '막걸리의 날' 기념
막걸리 19종, 곁들임 안주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의 막걸리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막걸리의 날'(10월29일)을 기념해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다.

15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막걸리의 일본 내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K-주막' 콘셉트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현지 MZ세대 인플루언서들에게 전통 주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을 선보였다. 한식 요리연구가 김연정 씨도 합류해, 한국 전통 막걸리의 역사를 비롯해 세계로 뻗는 현대 막걸리의 매력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막걸리 19종을 전시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했다. 막걸리와 궁합이 맞는 안주를 곁들인 '짝꿍 마케팅'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산 애호박과 파프리카, 깻잎, 고추 등을 활용한 5가지 종류의 모듬전을 옛 한국의 주막처럼 막걸리와 함께 제공해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